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강윤지 연구원

요약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자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 보상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사례가 있음.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자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 보상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미국에서는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전가함으로써 행정 명령이나 법률을 통해 근로자가 재해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²⁾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 계단을 내려가다 다친 에어캐나다 콜센터 직원의 상해를 직장 내 상해로 판단해 근로자 재해 보상 대상으로 판결하는 등 직장 내 상해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사례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근로자 25%가 직업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유지를 위해 고용 기준, 업무 관련 교육 수준을 낮추면서³⁾ 근로자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⁴⁾

○ 해외에서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사례가 있음

- 미국의 디지털 보험 중개회사 CoverEase는 AI를 통해 근로자 보상 및 관련 보험 서비스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전용 중개 플랫폼을 제공함
 - 중소기업 비즈니스 유형 및 급여, 근로자 보상 여부, 보험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약 15초 이내에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홍콩의 디지털 솔루션 플랫폼 기업인 AMTD 인슈어테크 그룹은 홍콩 정부에서 지정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의 모든 프로세스(신청·견적·결제)를 완전히 디지털화하여 중소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출시함

1) SmartCompnay(2021. 9. 13), "More costs on the cards for SMEs as COVID-related workers' comp claims sp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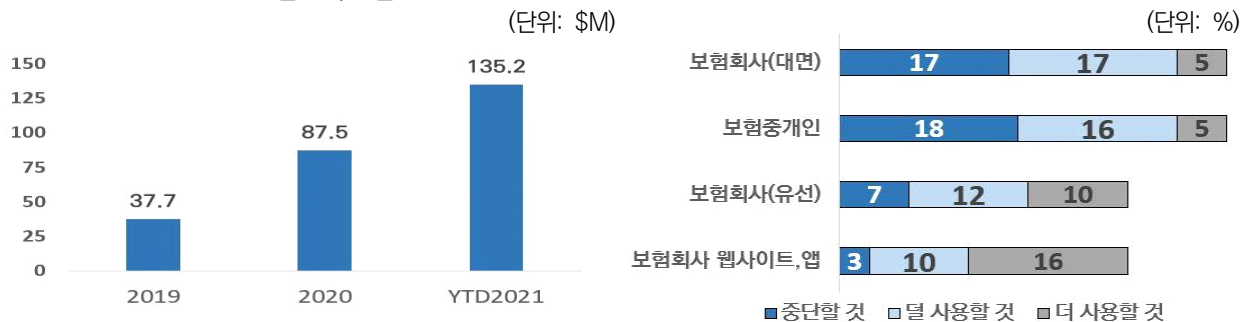
2)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A1346-1.html>

3) McKinsey(2021. 2. 18),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4) S&P Global(2022. 1. 8), "Insurtechs to see stronger emphasis on underwriting in 2022-industry exec"

- 일본의 도쿄해상화재보험은 중소기업 업종 데이터와 근로자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액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보험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험 이용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딜로이트 설문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미국의 중소기업 중 85.2%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비전통적인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보험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⁵⁾ 맥킨지 설문조사 결과, 영국의 중소기업 17%는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 보험회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함⁶⁾

〈그림 1〉 미국 Pie Insurance, 중소기업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원수보험료 〈그림 2〉 영국 중소기업 보험 서비스 이용 방식의 전환 의도



주: YTD 2021은 9월 30일까지 포함함
자료: S&P Global(2022. 1. 18)

자료: McKinsey(2020. 11. 5)

-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대한 디지털 기술 도입은 중소기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절차의 복잡성 문제와 보험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지털화를 통해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면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률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⁷⁾
 - 보험회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중소기업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시장 확장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22. 1. 27)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 보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⁸⁾ 중소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책임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⁹⁾에 따라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 비교, 보험 보장 분석 등의 보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5) Deloitte(2022. 3. 31), "How to reinvent the small - business insurance market for a digital economy"

6) McKinsey(2020. 11. 5), "Insurers must rethink the SME segment: Lessons from the United Kingdom"

7) Insurance Business(2022. 1. 5), "How agents and carriers are being boosted in workers' comp"

8)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1361&mnSeq=207#none>

9)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인슈어테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이며, 온라인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접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음